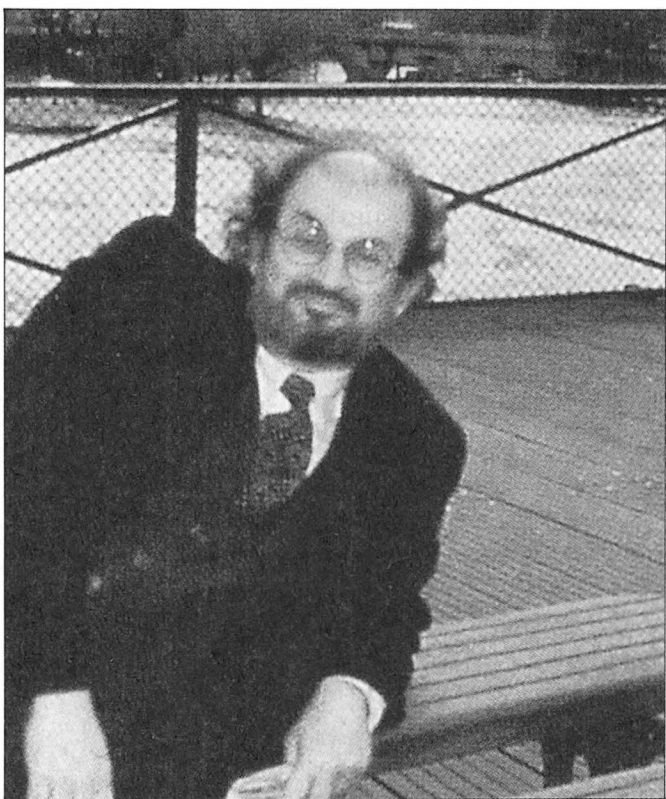


고향 인도에 보내는 연애편지

루시디의 성장소설 《무어의 마지막 한숨》



고향 인도에 대한 향수를 담은 신작소설을 펴낸 살만 루시디.

회교 모독죄로 7년째 은둔생활중인 인도 작가 살만 루시디의 신작소설 《무어의 마지막 한숨》(판테온)이 최근 영국 화이트리드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구미 독자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평론가들은 《악마의 시》에서 대담하고 화려한 문체를 구사했던 루시디가 이번 작품에서는 한결 단순해진 면모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박하고 아름다운 문장이 감동적”이라고 평했다. 또 “고향 인도에 보내는 강렬한 연애편지”라고 지적했다.

《무어의 마지막 한숨》의 무대는 19세기 말 인도. 무어란 이름의 한 소년은 정치적, 종교적 혼란 속에서 사랑과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룬 일종의 성장소설이다. 특히 당시 인도 예술가들의 세계, 향료 무역으로 쏟아져 들어온 부(富)의 양지와 음지, 즉 대도시 상류층과 뒷골목의 세계를 충실하게 재현해내고 있다.

주인공 무어는 화가 어머니 오로라가 가마 밑에서 감수성 예민한 청년으로 성장한다. 열정적이면서 모성애가 강하고 현명한 오로라는 인도의 풍요한 정신세계를 상징한다. 무어는 유명정치인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인도의 정치적, 종교적 혼란을 경험

하는 한편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닌 우마란 이름의 여성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어머니 오로라는 우마가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을 지녔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한다. 무어는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마와의 사랑을 지속시키려다가 파탄의 길로 한걸음씩 다가가게 된다.

이 소설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주인공이 한 미치광이의 마수에 걸려 탐에 갇히는 대목. 죽음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는 우연히 일본 여성 아오이 유에를 만나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는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인 아오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도있는 생활을 계속해나가는 것을 보고 감동, 글쓰기를 시작한 것. 결국 글쓰기는 무어의 생명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무어의 이같은 처지는 작가 자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평론가들의 지적이다. 루시디 역시 광적인 회교근본주의자들의 암살위협에 시달리며 감옥과 같은 생활을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남미와 호주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등 공식행사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

이다.

루시디가 주인공 무어처럼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는지 흥미롭게 지켜볼 일이다.

토속내음 물씬한 멕시코 신화집

멕시코 토속어인 마야어로 된 동화 및 신화집 《약물》(쇼렐린)이 최근 멕시코시티에서 출간, 현지 학계와 독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멕시코에 살고 있는 원주민 중 마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약 70만명. 그나마도 노년층 숫자가 줄어들면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멕시코 출판사들은 상업성 부족을 이유로 마야어책 출간에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물》의 출간은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에 이해의 다리를 놓은 귀중한 시도”(이베로아메리칸대 인류학과 테니스브라운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작가는 미국 화가인 애나 우즈, 10여년 전 마야 문명 지역을 여행했다가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그는 당시 들었던 옛이야기와 자신이 직접 쓴 글을 모아 책으로 펴내게 됐다. 영어, 멕시코, 마야어가 함께 실려 있으며 마야어 번역은 현지 원주민 출신 작가가 맡았다. 표제작인 《약물》은 한 소년이 호숫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는 이야기. 이밖에 《돼지머리의 춤》 등 환상적이며 토속내음 물씬한 12편과 우즈의 삽화 20점이 실려 있다. <오애리>

부정한 권력과 기업의 결탁

부정한 권력과 결탁한 기업인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각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접근 방법을 알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프랑스 오디르 자콥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책의 제목은 《나치 점령 치하의 기업인들 Les patrons sous L'Occupation》. 문제는 독일 치하의 프랑스 기업들이다.

이 책은 40년대 말 툴루즈 근처의 군주둔지 노에에서 나치에게 경제적으로 부역한 기업인이 재판받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화물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주였던 베틀리에에는 많은 나이 때문에 징역을 살지는 않았지만 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되었고 재산을 몰수당했다. 베틀리에에는 혹독하게 나치부역의 대가를 치른 셈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 대한 정확한 지불이었던가라는 문제가 남았다. 그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책의 저자들인 르노 드 로세브린과 장클로드 아즈라는 정치적인 처벌에서 프랑스의 산업이 면제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프랑스 전체가 빠져 들어갔던 복잡한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이러한 정치적 공도의 의미가 그리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다”는 일종의 냉소적인 견해도 사후적인 평가일 뿐이다. 불가피한 담합이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저자들 역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그 담합이 반독 레지스탕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하는 점이다. 여기에 중요한 예로 등장하는 것이 유명한 타이어 회사인 미셸린이다. 미셸린사 역시 독일의 나치에게 경제적인 협조를 했지만 그들은 동시에 프랑스의 자유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864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 이 미묘한 문제에 최대한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김택>

가족간의 근원적 갈등 해석

페터 폰 마트(Peter von Matt)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의 독일문학가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이다.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믿음과 사랑을

원하는 책의 정확한 분야 파악이 우선

번역물 찾아내기

조승훈

을지서적 외서부 사장

저버린 자식들이 등장하는 《타락한 아들과 행실 나쁜 딸들》(1995)은 비극 문학 속에 나타난 가족간의 근원적인 갈등을 다시 해석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기본이 되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스위스의 취리히 대학에서 신독일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트는 《인류 양상의 문학사》(1983)와 《사랑의 배반 믿음을 저버린 문학 속의 인물들》(1989)의 발표로 이미 세계 문학사에 나타난 비극을 다룬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단순히 '문학사'의 범주에 포함된다기보다 문학 속에서의 인간사를 탐색하고 찾아내는 문학적 인류학에 더 가깝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테오도르 슈토름이나 실러, 베르트 브레히트나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 셰익스피어나 폰타네의 삶과 작품에 대한 유익한 가르침을 얻고자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저자는 이러한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떠한 대작을 남겼는지에 대해 묘사하는 게 아니라, 행실이 나쁜 자식들을 판결하는 부모들, 혹은 그릇된 부모들을 심판하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즉, 그리스의 비극과 중세의 고지독 일어로 된 운문 시가에서부터 고트프리트 켈러의 단편 소설과 드로스테의 담시를 거쳐 베르트 브레히트의 교훈극과 요제프 로트의 소설 등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서 드러난 부모와 자식간의 심층적인 갈등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비평가 페터 바프네브스키는 《포커스》지에서 페터 폰 마트의 《타락한 아들과...》에 대해 언어 예술의 대가다운 작가의 역량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평한 바 있다.

이러한 문학적 평가 외에도 인간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반항과 체벌, 복수와 후회, 승리와 패배에 대한 명쾌하고 분명한 고찰은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우리들 자신의 비극을 재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주목할 만하다. <문성원>

번역대상물을 찾고 있는 출판사는 원하는 책이 어떤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또 겨냥하고 있는 독자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찾는 책을 쉽게 찾기 위해서다.



찾고자 하는 정확한 범위와 주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 대형서적 외서부.

영문서적을 수입, 도산매하고 있는 필자가 출판업계 사람들로부터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요청은 '히트'를 할 만한 번역물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번역물을 찾고 선택할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본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번역물을 찾을 방도를 대라면 《퍼블리셔스 위클리》나 《뉴욕 타임스 북리뷰》를 보라든지, 번역물을 알선하는 에이전시를 통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몇개의 결점이 있다. 첫째, 이런 출판정보는 누구에게나 다 제공되는 것이어서 경쟁적 이점이 없다. 둘째, 이런 출판정보는 간접적인 것이고 이미 선택된 것 중에서 골라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다. 셋째, 이런 출판정보는 갓 출판된 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출판된 책과 앞으로 출판될 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문차원에서 번역물 찾기

이 글에서는 전문적인 차원에서 번역물을 찾는 방법을 알아본다. 우선 현재 미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서적(in print titles)의 규모를 살펴보자. 영문서적, 즉 미국·영국을 포함한 영어권 서적은 매년 10월에 발행되는 <Books in Print>(BIP, 미국의 종합도서 목록, R.R. Bowker에서 출판)에 수록되어 있다. 책의 제목(title)별, 저자(author)별, 주제(subject)별 각 4권씩 총 12권으로 되어

있는 BIP 1996년판에는 4만6천 출판사에서 펴낸 160만종의 책이 수록되어 있다. 1996년판 BIP에 새로 첨가된 신간은 14만2천종이며 10만 종이 절판(out of print)되어 제외됐다. 1996년에는 약 17만종의 새 책이 출판될 예정이며, 이 책들은 현 1996년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BIP의 주제별 안내(Subject Guide)에는 소설을 제외한 비소설 116만종의 책이 미국 국회도서관 분류에 따라 7만4천5백 항목별로 분류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이론적으로 160만종의 이미 출판된 책과 앞으로 출판될 17만종, 총 177만종 중에서 번역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177만종을 다룰 수 있는 규모로 줄여야 한다.

한편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책에 따라서 찾아야 하는 방향이 대단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점을 운영하는 필자가 제일 많이 받는 요청은 읽을거리를 골라달라는 것이다. 그럴 때면 필자의 응답은 언제나 읽기를 원하는 분야를 밝히려는 것이다.

독자층의 요구 뚜렷해야

예를 들어서 '역사' 읽기를 원한다고 대답하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역사를 읽고 싶으시면 어떤 역사를 읽으시겠습니까? 고대를 읽으시겠습니까, 중세

를 읽으시겠습니까, 현대를 읽으시겠습니까? 서양을 읽으시겠습니까, 동양을 읽으시겠습니까? 소설형식으로 읽으시겠습니까, 학술서적을 읽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논픽션 형태를 읽으시겠습니까? 사건중심으로 씌어진 역사를 읽으시겠습니까, 인물 중심으로 씌어진 역사를 읽으시겠습니까? 남자가 쓴 것 또는 여자가 쓴 것? 자본주의자가 쓴 것 또는 무정부주의자가 쓴 것? 정확하게 어떤 책을 읽고 싶으십니까?"

번역 대상물을 찾고 있는 출판사는 원하는 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또 자기가 겨냥하고 있는 독자층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 찾는 책을 쉽게 찾기 위해서이다.

다음 단계에서 살펴야 할 것은 영어권 독서시장에 나와 있는 책이란 이름의 '상품' 성격이다. 미국 사람들은 워낙 다양한 상품에 길들여져 있는 소비자들이어서 책도 이런 풍토에 맞춰 편집돼 있다. 따라서 제목만 보고 책을 선택했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책의 제목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내용도 비슷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출판사에 따라 내용이 전혀 다르다. 겨냥하고 있는 독자층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